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헬레보루스
수상내역	장려상
작가	하혜운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p>거듭된 실패로 본래의 성격과 자아를 잃어가던 비운의 배우,                      눈떠보니 새로운 성격으로 다시 태어났다.</p>

# 헬레보루스

S# 1. 이현의 집[오후]

햇빛이 커튼 사이로 방안에 스며들고 있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형우(이현)는 곧 깬 듯이 뒤척거리다 눈을 뜨는데, 낯선 환경에 눈을 확확 돌리며 방 안을 살피다가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형우** (당황스러운) 여긴.. 어디지? 뭔가 좀 익숙한 것 같은.....?!!  
 (뜨악하며) 설마.... 설마 김이현 집?!!!

문 밖에서 푹푹 노크소리 들리고

**연호** (E) 형, 일어났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하는데.

**형우** (방안을 뱅뱅 돌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신경질적) 아, 진짜 김이현!!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연호, 방을 돌고 있던 형우를 발견하고

**연호** 어, 이현이형 일어나게셨어요? 근데 왜 제 말에 대답도 안 해주신 거예요!

**형우** (이현이 아닌데) 저기

**연호** (형우 말 끊고 시계 보면서) 형,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니깐 얼른 씻고 나오세요.

뒤돌아서 방을 나가려던 연호, 다시 몸을 확 돌려 형우에게 다가온다.

**연호** (형우 뺨히 보면서) 형, 설마 어제 또 술 마시다가 늦게 잤어요?

이 피부 까실한 것 좀 봐! 샴 예약도 한번 잡아야겠네.

에휴 (한숨 쉬고) 형이 이번 작품 날라 가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만

그래도 이럴수록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형우 욕실로 밀며) 씻고 스킨, 로션 콕콕 좀 바르세요.

연호가 나가자 고요한 침묵에 휩싸인 욕실에 홀로 서있게 된 형우.

형우보고 이현이라 부르며 말을 건네던 연호 때문에 형우의 머리는 더 복잡해지기만 하는데, 이 때 욕실에 있는 거울을 보게 된 형우는 자신의 얼굴이 아닌 얼굴에 깜짝 놀란다.

**형우** (몸 뒤로 주춤 이면서) 아이, 깜짝이야. (얼굴 더듬으며) 김이현 얼굴 하나는 진짜 잘생기긴 했네. 그보다 이제 어찌지?

S# 2. 이현의 차 안[오후]

연호의 재촉임에 이끌려 형우, 차에 타게 된다.

**형우** (운전하고 있는 연호 보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연호** (내비에서 나오는 말 따라하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형우 말 듣고) 아, 제가 말 안 해드렸어요? 오늘 노을이형 카페에서 배우들 모임 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형우** (이현이가 아니라서) 내가 그런데 갈 필요는 없는데.... (중얼거림)

**연호** (운전하다 놀라 형우 보고 다시 앞을 보는데 흥분한 채로) 이현이형!! 형이 안가면 누가 가요? 형처럼 그 모임 같만큼 충분한 조건 갖춘 사람도 별로 없어요!!

**형우** (이현이 아닌데 계속 이현이라 불러 거슬리는) 그것보다 지금 나는 이현이 아니라 최형우야. 지금 상황 내가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할 테니 그냥 앞으론 형우라고 불러.

**연호** (감탄하며) 우와, 형 연기했던 거였어요? 어쩐지 아까부터 형이 쏘 낯선 것 같다 했더니, 연기 때문이었구나. 형이 연기에 집중하려고 역할 이름 부르라는 거 다 알아요. 그 정도 이해력은 저도 있다가요. 형이랑 있을 때는 형우형이라 부르도록 하겠습다!

**형우** 연기가 아니...(라)

**연호** 어, 다 왔다. 형,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도 금방 주차해놓고 올게요.

연호의 말로 형우 말 끊기게 되고, 형우가 차에서 내리자 차를 끌고 사라지는 연호. 혼자 카페 앞에 서있게 된 형우는 카페간판을 쳐다보면서

**형우** (혼란스러운) 휴... 일단 들어가자.

S# 3. 노을의 카페[밤]

카페 안으로 들어선 형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서빙해주고 있던 노을이 형우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노을** 이현아, 왔어? 저쪽 안으로 가봐. 애들 다 와서 너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나도 이것만 가져다주고 갈게. (손에 들린 쟁반 한 번 들면서)

하고 다시 손에 들린 쟁반을 가지고 서빙 하러 가는 노을.

노을이 알려준 곳으로 형우 걸어가는데 카페 안에 있던 여러 배우들이 형우에게

이현이라 부르며 인사를 건네자 어정쩡하게 인사를 받아주는 형우.  
 인사를 받으면서 걸어온 곳에는 지훈, 하진, 설원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형우가 오는 것을 보자 반갑게 맞이해준다.

**설원** (반갑게) 형,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는 형 보려고 약속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 오라는 형은 안 오고 지훈형이랑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하진이형만 와서 여태까지 나 괴롭히는데 진짜 서러워서....  
**하진** (설원에게 주먹을 들이밀며) 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리고 내가 널 언제 괴롭혔냐? 예뻐해 준적은 있어도 괴롭힌 적은 없다, 난!!  
 (형우에게 손짓하면서) 이현아, 이놈 말 신경 쓰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설원** (기가 찬 듯 혀 차며 중얼거림) 이것 봐, 아주 이현이형만 오면 가식이 어우~ 못 봐주겠네. 안 괴롭히기는 무슨, 한번만 더 예뻐해 줬다간 죽겠네, 죽겠어. 착한 내가 참아야지 어쩔겠어.

설원의 중얼거림 다 들리고, 하진이 못 들은 것 같이 웃고 있지만 한 손으로는 설원의 허벅지를 꼬집고 있고 설원은 아프다고 하진을 내려친다.  
 이현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가 자리에 앉는다.

**설원** 아파, 아프다고!! 이 형이 진짜!!!!  
**하진** (과장된 몸짓으로) 뭐, 뭐!! 이놈의 짜식이, 야, 나와. 싸우자!

설원과 하진 티격태격 거리기 시작하고 지훈은 이 둘을 무시하며 커피 한 모금 마신다. 형우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기만 한데

**지훈** 이현아, 저것들이 싸우는 게 한, 두 번도 아니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것보다 너 요즘 집밖으로 잘 안 나온다며. 연호가 너 걱정 많이 하더라.  
**형우** (연호? 이현이 매니저?) 아, 그래?  
**지훈** 나도, 노을이도, 저것들도 저래보여도 걱정 많이 했어.  
 (조심스럽게) 혹시.. 하려던 작품 이번에도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이 때 음료 한 잔 가지고 온 노을이 형우에게 건네주며

**노을** 무슨 이야기 중이야?  
**하진** (노을을 격하게 반기며) 노으리 와썬용? 지후니가 자꾸 하찌니 무시해서 너무너무 슬퍼썬용(하고 우는 척)  
**노을** (소름끼치고 하진 거들떠도 안보는) 지훈아 무슨 이야기 중이라고?  
**지훈** 그냥 이제 막 이현이랑 이야기 하려던 중이었어.

노을 아, 그랬구나.

아무도 하진을 신경도 쓰지 않자 설원 그런 하진이 안쓰러워 토닥토닥 해주는. 이에 하진은 감동 먹어 설원과 뜨거운 포옹을 하고 노을, 지훈, 형우 띠꺼운 눈빛 날리다 다시 이야기 이어나간다.

노을 이현아, 임감독님 알지? 내가 저번에 우연히 봤는데 이번에 영화 한 편 준비 중이시래. 시나리오 보니까 내용도 진짜 좋고 캐릭터들도 매력적이더라고. 내가 드라마 촬영만 아니면 조연이라도 제발 좀 시켜달라고 졸랐을 텐데, 아쉬워. 아, 중요한건 이게 아니고 감독님이 추천해줄 만한 배우 없냐고 물어보셔서 너 추천했어. 아마 이번 주 내로 연락 갈 거야.

하진 (어느 새 상태 회복한) 그거!! 지금 배우들 사이에서 서로 찍으려고 난리 났잖아. 오디션 경쟁률도 엄청 치열하다던데.

지훈 임감독님 작품 자체가 이미 흥행 보장 되어 있으니깐. 그런데다가 이번 작품은 정말 대작이라니 더 치열할 수밖에 없지. (이현이 보면서) 그 작품 꼭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노을 이현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임감독님께 추천해 드렸을 때 반응 괜찮았거든. 이현이 연기실력 정말 뛰어나잖아?

하진 노을!! 나는? 나는 추천 안했어? 어? 나는!!!

노을 징그럽게 왜이래 아까부터? 너는 너 알아서 역할 따 내던가 해. 애기도 아니고.....

노을의 말을 듣고 하진 절망하는 자세 취한다.

지훈 이현아 감독님께 연락 오면 꼭 한다고 그래, 알겠지? 너 전 작품 잘 안했던 건 아무래도 이 작품 만나려고 그랬던 거였나 보다.

형우 (시큰둥하니) 이현이한테 꼭 그 작품 선택하라고 말할게.

설원 (어리둥절한) 형이 이현이잖아, 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해?

하진 김이현, 너 설마 아직도 지난 번 시나리오 속 역할에서 못 나온 거야? 그거 얹어진 거잖아!! (무표정으로) 미련 가지지 말고 너 자신으로 돌아와. 너가 그런다고 그 작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노을 유하진 흥분 하지 마. 이현이 한 번 연기 시작하면 그 연기에서 잘 못나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이번에 이현이가 하고 싶어 했던 시나리오 못하게 돼서 그 역할에서 더 못 빠져 나오고 있는 걸 거야. 친구인 우리들이 이현이 더 잘 이해해줘야지.

형우 (화난 표정) 이현이에 대해 그렇게 잘 알면서 이현이 친구라는 놈들이

이현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뭐했데? 나는 이현이랑 띄어 놀래야 띄어 놀 수 없는 사이긴 한데 이현이는 아니고, 최형우야. 이현이가 아니니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이만 가볼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형우. 형우가 나가는 것을 발견한 연호는 형우를 부르며 뒤쫓아 나가고 노을, 하진, 지훈, 설원은 그런 형우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는데

**설원** (멍한 표정으로) 이현이형이 무슨 말 한 건지 지금 이해된 사람.. 있어?

**하진** (똑같이 멍하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이현이한테 뭐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이 든다....?

**노을** (곰곰이 생각하느라 말이 없고)

**지훈** 일단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이현이가 한 말 이해 못할 거 같으니깐 당분간 이현이 지켜봐보자. 그럼 뭔가 말에 대한 힌트라도 찾을 수 있겠지.

#### S# 4. 이현의 집[밤]

턱을 만지작거리며 방 안을 걸어 다니는 형우,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형우** 나도 모르게 아까 이현이 친구들한테 화내고 와버렸네. 나중에 만나면 사과라도 해야 되나? (고개 좌우로 흔들며) 아니야, 이현이가 숨어버린데 그 애들 잘못도 조금은 있으니깐 난 사과할 필요 전혀 없어. 그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때 형우의 눈에 일부러 숨겨둔 것 같이 보이는 수첩 한 권이 눈에 띈다.

**형우** (수첩에 다가가 살펴보면서) ... 이현이 일기장? (허공에 대고) 김이현 쯤만 볼게. 이게 다 숨어버린 너 잘못이니깐 나중에 뭐라 하지 마라.

의자에 앉아 한참동안이나 이현의 일기를 보던 형우, 일기를 보면 볼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져간다.

**형우** (수첩을 탁 덮으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찍은 영화들은 하나같이 흥행 안 되고, 찍을 예정이었던 영화들은 없어지기 일쑤고. 평론가들 사이에서 연기력은 좋은데 작품 운이 정말 없어서 비운의 배우라는 별명까지 붙여지질 않나. 불쌍한 놈 인거 알고 있기는 했는데 이정도 일 줄은.... 김이현 진짜 대단하네, 용케도 이런 생활 여태까지 견뎌오고.

형우 수첩을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놓고 침대에 가서 누워 잠을 청한다.

S# 5. 다음날 / 이현의 집[아침]

창문 앞에 쳐져있지 않던 커튼 사이로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밝은 햇빛 때문에 형우 잠에서 깬다.

형우 (방을 두리번거리며) 아직도 나인건가?

이때 방밖에서 노크하는 소리 들리고

연호 (E) 형, 저 연호예요. 들어갈게요!!(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침대에 있던 형우에게 흥분한 상태로 와서) 형, 형 대박이에요.  
노을이형한테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는데 진짜로 임감독님께서!! 형이랑  
같이 작품 해봤으면 한다고 시나리오 보내주셨어요!!!! (책 한권 내민다)

형우 (책 받으면서) 이게 그 시나리오?

연호 네! 오늘 스케줄 없으니깐 쉬시면서 한 번 읽어보세요. 전 이거 드리려고  
온 거니깐 이만 가볼게요. (하고 방문 열고 나간다)

형우 연호가 주고 간 시나리오 읽어본다. 몇 시간 뒤 시나리오를 다 읽고

형우 진짜 대박이다. 이걸 역할이 주연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탐낼만하네.  
근데 하필 이럴 때 김이현은 숨어 버리거나 하고.

한참동안 고민하던 형우

형우 아, 몰라. 지금 이 몸 주인은 나니깐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연락하는 형우.

F.O되었다가 F.I

<몽타주>

- 영화 촬영 때 화려한 액션 신 멋있게 소화해내는 형우
- 영화 시사회 때 팬들에게 당당하게 인사하는 형우
- 인터넷에 형우 관련된 뉴스, 소식들 가득하고 검색어 순위 1위까지 하는 모습
- 여러 cf찍고 있는 형우



- 팬 미팅 가지고 있는 형우 (팬 미팅 현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있음)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장안에 화재가 되고 있는 스타, 김이현씨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 S# 6. 설원의 집[밤]

소파에 노을, 설원, 하진, 지훈 앉아서 TV보는데 TV에 이현이 소식이 나온다.  
 설원 그런 TV 잠시 보다 리모컨으로 끄고

**설원** (노을, 하진, 지훈 둘러보며) 형들은 요즘 이현이형 어떻게 생각해?

**지훈** 이현이형 어떻게 생각하냐니...

**설원** 난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그래? 이현이형 저번에 카페에서 그렇게 가버리고 나 이현이형 말 뜻 계속 생각하면서 지켜봤어. 보니까 표정도 정말 다양해졌고, 의사표현도 당당하게 하고, 농담도 잘하고.. 겉은 분명 이현이형인데 속은 이현이형이 아닌 느낌이었어. 그래서 처음엔 이현이형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김이현이 아니구나, 이현이형이랑 닮은 최형우라는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어.

**하진** (이상한 것 보듯이) 그건 또 무슨 어이없는 소리야? 최형우는 이현이가 연기하고 있는 다른 인물이니깐 다르게 느껴지는건 당연한 거고. 너까지 왜 그래?

**설원** (답답한 표정) 내 말좀 끝까지 들어봐. 내가 처음엔 이라고 했잖아. 그러다가 우연히 이현이형 특집 방송 나오는걸 봤어. 이현이형 옛날모습부터 소개하던 거였는데 내가 그 방송 보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왜 그랬는지 알아? 그 옛날 모습에 내 기억 속에 있던 김이현 모습이 아니고 최근에 보게 된 최형우 모습이 있었거든.

**노을** (머리 복잡해진)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진짜 김이현은 최형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설원** (고개 저으며) 나도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내 머릿속도 정말 복잡하거든. 근데 지금 활발한 최형우의 모습이 진짜 이현이형 모습이었다면 나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동안 봐왔으면서 그렇게 크게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동안 뭐 했는지, 왜 변해가는걸 알아봐주지도 못했는지, 이제까지 말로만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설원의 말에 노을, 하진, 지훈 침묵하며 고개 숙인다.

**설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이현이형이 이현이든 형우든 상관없으니깐 지금의 모습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어.

**새희** (E) 저기, 김이현씨!!

#### S# 7. 방송국[낮]

새희의 목소리에 뒤돌아보는 형우

**새희**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김이현씨. 저는 방송작가 정새희라고 해요.

**형우** 아, 안녕하세요. 배우 김이현입니다.

**새희** 실례가 안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형우** (고개 끄덕이며) 그럼요.

#### S# 8. 방송국 근처 카페[낮]

형우와 새희 앞에 음료수 놓여있고

**새희** 저, 제 소개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대학교 같은 과 후배였던 정새희라고 합니다!

**형우** (놀란) 아, 미안해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

**새희** (웃으면서) 괜찮아요. 제가 선배님 기억 속에 남을 만큼 비중이 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형우** 그래도.....

**새희** 정말 괜찮아요!! 그것보다 선배님과 대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 기회가 빨리 찾아온 거 같아서 좋네요. 일단 선배님이란 대화하게 된다면 꼭 감사인사 하고 싶었어요.

**형우** 저한테요??

**새희** 네. 선배님은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여러 문제로 정말 힘들어 할 때 선배님이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해주신게 정말 힘이 돼서 지금의 저를 있게 도움을 줬거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형우** 정작 본인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감사인사 받으니까 좀 민망하네요. 하하....(멋쩍은 웃음)

형우는 새희와 한참동안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 S# 9. 이현의 집[밤]

<회상>

카페에서의 일.

**사회**      아참, 선배님! 이번 작품 정말 좋았어요!! 제가 선배님 팬이라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요즘 잘되시는 모습 보니까 저까지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점점 선배님 모습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했는데 다시 옛날 모습 되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회상 끝.

**형우**      (머리 복잡복잡) 내 모습이 이현이 옛날 모습이라고?

그날 밤 형우 잠들어 내면 속에서 숨어버린 이현과 만나게 된다.

**형우**      (한없이 어두운 곳을 걸어가면서) 여긴 어디야? (누군가 보이고) 거기 누구 있어요?(하고 다가가는데 웅크려 앉아있는 이현 보인다.) 김이현?

**이현**      (웅크려있다 고개 들면서) 누구..세요?

**형우**      어, 안녕? 나는 최형우야, 아니 김이현인가?

**이현**      그게 무슨 말이야?

**형우**      나도 잘 몰라. 나도 여태까지 최형우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도 김이현 너의 일부였나 봐.

**이현**      (가우뚱한 표정)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형우**      내가 너의 옛날 모습 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말로는 잘 이해 못 할거다. 겪고 있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내 말을 이해하고 싶으면 이제 그만 숨어있고 밖으로 나와, 김이현.

**이현**      (지친 표정으로) 지금까지 나는 너무 힘들었어. 더 이상 비운의 배우 같은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너가 계속 나로 살아가면 안 돼?

**형우**      너가 숨어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 넌 더 이상 비운의 배우도 아니야. 용기를 가지고 나와!! 난 결국 너의 일부일 뿐이지 완전한 너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의 나도 너야!

**이현**      (멍한 표정으로) 내가... 더 이상 비운의 배우가 아니라고? 어땡..게??

**형우**      그건 너가 직접 나와서 확인해라. 나도 이제는 너 안으로 들어갈란다.

**이현**      (다급하게) 잠깐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S# 10. 병원[낮]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현. 그런 이현 주변에 노을, 설원, 하진, 지훈, 연호 깜짝 놀라 다가온다.

이현 (깜짝 놀라) 여기가 어디야?  
 연호 (울면서) 형 이틀 동안 못 깨어났던거 알아요?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말하지 왜 혼자 힘들어해요.  
 지훈 (이현에게 다가가며) 이현아 괜찮아? 아니 형우..야?

이현은 형우와 생각이 합쳐지면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현 (모두를 보면서 웃음) 아니, 나 이현이야. 나 다시 돌아왔어.  
 노을 잘 돌아왔어. 정말.....

설원, 하진, 연호는 이현 끌어안으면서 대성통곡하고 그들을 토닥여주는 이현.

F.O되었다가 다시 F.I

꼬마 (어린이 식물도감 책 보고 있는) 헬레보루스는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눈이 와도 헬레보루스는 꽃을 예쁘게 활짝 피우며 겨울장미라고도 불리는...

F.O되었다가 다시 F.I되면서 겨울 눈 내리는 풍경으로 변환. 카메라 클로즈업 시키니 눈을 맞으면서 예쁘게 피어있는 헬레보루스가 보인다.

F.O

검은 화면에 크레딧 내려온다.

<출현>

김이현	김이현
최형우	김이현
매니저	차연호
이지훈	이지훈
진노을	진노을
박하진	박하진
유설원	유설원
정새희	정새희

<대본>

정새희